

종이팩수거함

2019년 10월 성동구청에서 종이팩의 분리배출 수거를 위해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시범 설치했다. 위치는 한양대를 비롯한 4곳. 한양대 서울캠퍼스 내 [한양플라자](#) 1층 (편의점 맞은편)에 수거기가 설치됐으며, 전용앱을 설치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1]



한양플라자 1층 편의점 맞은편에 위치

- 일반 종이와 종이팩의 차이 : 종이팩은 해외에서 100% 수입한 천연펄프로 제조되며, 별도 수거 및 처리 시 고급 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일반 폐지와 함께 처리(소각 등)되어 재활용률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2]

전용앱 사용한 분리 배출 방법

1. 구글플레이와 어플 스토어에서 '분리수거' 검색
 2. 회원코드(QR) 촬영하여 등록 (회원코드는 1번만)
 3. 재활용품 바코드 촬영 등록
 4. 기기의 불빛이 깜박이면 투입 (접어서 투입)
 5. 적립 완료 확인
 6. 추가로 배출시 재활용품만 등록
- 문의 및 고장 신고 : 카카오톡 '오늘의분리수거' 등록

재활용 좋은점

1. 유기농 우유로 교환 가능
2. 각종 할인 및 교환 이벤트 (앱)
3. 도시 숲 조성 (포인트 기부로 나무 심기 등)
4. 미화 팀 응원 : 미화 근로자에게 장갑 등 물품 전달

1. [↑](http://www.seongd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5) 기사<성동저널> <http://www.seongd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5>
2. [↑](#) 출처 : 성동구 보도자료(2019. 10. 14)